

문운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 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이숙(전주대)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지배이데올로기의 투영과 현실 비판의 서사 |
| II. 『완전사회』의 과학소설(SF)적 성격과 대중성 | 1.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편린과 공존·화해의 메시지 |
| 1. 정치적 과학소설로서의 면모 | 2.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와 풍자의 양상 |
| 2. 시대적 배경과 대중성의 문제 | IV. 결론 |

I. 서론

문운성(文允成)의 『완전사회』(改題本 『여인공화국』(1985))는 한국 최초의 본격 과학소설(SF)로 손꼽힌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연구는

1) 조성면, 「SF와 한국문학」,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194~196면 참조.

『완전사회』가 한국 최초의 SF 작품이라는 데 이견이 있기도 하다. 김이구는 한낙원의 『금성 탐험대』(소년세계사, 1957)가 우리문학사 최초의 본격과학소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낙원이 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소설을 활발히 써낸 까닭에 작품이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 통권 9호, 2005.6, 156~171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완전사회』의 창작시점으로서의 선도성보다는 작

드물다. 한국 과학소설의 효시로 인정하는 소수 평자들의 짧은 언급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본격적인 작품론은 두 편에 그칠 뿐이다.²⁾ 아마도 그 이유는 작가 문윤성³⁾이 나름대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지만, 눈에 띄는

가작 메시지와, 작품이 생산된 시대상황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것이므로 이 점은 논외로 한다.

2) 이정옥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완전사회』를 선구적으로 연구하였다(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문윤성의 『완전사회』론」, 대중문학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4면). 복도훈은 ‘완전사회’를 남성적 주체성(정체성)의 알레고리로 보았으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주인공 우선구에게서 원초적 아버지상, 거세불안 등을 읽어내었다. 특히 프레드릭 제임슨과 피에르 마슈레의 논의에 힘입어, 『완전사회』가 유토피아에 대한 서사이자 남성중심이테올로기를 은폐하여 갈등을 봉합하는 서사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았다(복도훈,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문윤성 과학소설, 『완전사회』(1967)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24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011.10, 345~373면).

3) 본명은 김종안(金鐘安)이며 문윤성(文允成)은 필명이다. 『완전사회』는 1965년 『주간한국』에서 공모한 추리소설 당선작이다. 1966년 1월 2일(67호)부터 4월 24일(83호)까지 1부는 『주간한국』에 연재하였고, 후에 미발표 원고(2부 분량)를 추가·통합하여 출판하였다. 후에 『여인공화국』(홍사단 출판부, 1985)으로 제목을 바꾸어 재출간하였다. 두 텍스트 사이에는 제목을 변경한 점 이외에는 개작이라고 볼 만한 차이점이 거의 없다. 문윤성은 1916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하였고(당선 초기에 서울 관훈동에서 1914년에 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1985년 『여인공화국』 단행본에서는 정정표기함), 삼흥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환, 공사장, 광산에서 노무자로 일하다가 1935년에 일본에서 『신약인(新若人)』의 소설현상응모에 가작으로 뽑히면서 등단하였다. 1946년 『신천지』에 단편 『뽕』을 발표하였으나, 생활고로 문단활동을 하지 못했다. 51세가 되던 1965년 『주간한국』의 추리소설 공모에 당선되었다(조성면, 「우리 문학사에서 SF의 수용과 전개 양상」,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195면 참조). 작가가 그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한국추리작가협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문윤성은 2000년 8월 24일 작고하였다.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장편소설 『완전사회』(수도문화사, 1967), 『여인공화국』(改題本, 홍사단출판부, 1985), 『일본심판』(글수레, 1987), 『사슬을 끊고』(행림, 1989), 장편서사시 『박꽃』(문장, 1984), 단편소설 「소련 空襲」, 「월드컵 특공작전」, 「모나리자」, 「鳳雲洞 回想」, 「극락왕 만세」, 「텐버에서 생긴 일」, 「프로야구와 프로도박사」, 「田園 랍소디」, 「아름다운 다도해」, 「하우 로드의 두 번째 죽음」, 「上院寺의 鐘」, 「범

후속작품을 내놓지 못했던 점과,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초기작 『완전사회』의 작품 내적 한계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발한 착상과 묘사 그리고 문장이 탁월하다”는 정비석의 평과 광대한 스케일과 치밀한 서사구성 능력을 높이 샀던 심사위원 한운사와 조풍연의 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과학소설(SF)⁵⁾로서, 미래소설의 효시로서의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동한은 개제본 『여인공화국』(1985)에 대한 해설 「기상천외한 미래사 회상 - 과학소설의 진수 보이는 작품세계」에서, 『여인공화국』이 『타임머신』, 『투명인간』, 『우주전쟁』의 작가 H.G. 웰즈에 의해 개척된 과학소설이 활발 하게 창작·보급되고 있는 서구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개척 상태의 국내 과학소설계에 신기원을 이룩할 만한 소설이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당시(1985년)에도 전혀 낯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설의 착상이나 구성이 치밀하며, 날카로운 현실 풍자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완전사회』가 가진 과학소설적 성격을 살펴보는 동시에, 1960년대 문학의 시대적 자장 속에서 작품이 보여준 대중성과 정치성을

죄와의 전쟁, 「팔당 호반의 추적」, 「원수 갚기」, 「딱정벌레」.

4) 『완전사회』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우연성의 남발, 평면적인 인물 처리 방식과 이데올로기적 발화의 수위 문제(복도훈), 소비니즘적 소설의 표현(이정옥) 등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5) 조성면은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이 ‘판타지’와 ‘과학소설’ 장르를 결합시킨 일 본식 용어짓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SF(Science Fiction)의 우리말 번역어는 ‘과학 소설’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미리엄 웹스터의 문학백과사전에 따르면 SF는 “개 인과 사회에 가해진 과학적 충격을 주로 다루는 소설로 과학적인 요소가 본질 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환상에 가까운 문학”이다(조성면, 앞의 글, 187면). 원래 SF라는 단어는 1923년 휴고 건스백이 『과학과 발명』지 전부를 과학소설 특 집호로 꾸미면서, 과학소설의 개념을 ‘과학적 사실과 예언적 비전이 뒤섞인 멋진 로맨스’로 설정하고, 이 특집의 이름을 사이언티픽션 Scientifiction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임성래, 「과학소설의 전반적 이해」, 대중문학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5면).

찾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통해 건네는 메시지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더불어,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이 작품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한국 문학의 장르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맞닿으리라 기대한다.

II. 『완전사회』의 과학소설(SF)적 성격과 대중성

1. 정치적 과학소설로서의 면모

『완전사회』는 이른바 ‘완전인간’으로 차출된 27세의 한국인 남성 우선구가 미래로 보내져 성(性)전쟁 이후 과학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인천하가 되어버린 인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되면서, 인류가 당면한 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한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작가의 “왕성한 상상력”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적 설명”으로 작품의 개연성을 얻게 해준다. 작품의 개연성을 돕는 과학적 설정은 작품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인공 우선구가 시간여행의 잠에서 깨어나 처음 보게 된 밀실의 여러 장치에 대한 묘사(가), 시내 관광을 하며 보게 된 공장의 과학적 내부 설비에 대한 묘사(나), 그리고 과학자들의 위대한 발명에 대한 언급(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

“이 방의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죠”(…)

이런 것들 역시 선구에 있어선 과거 경험한 것이 진일보의 개량이 있는 정도이고, 아주 참신한 것은 조명 장치이다.(…)

발광 도료(發光塗料) 따위의 광원체는 옛적에도 있었고 선구 자신도 전에 이 부문에 관심을 가진 바 있어 발광 물질에 대한 개념은 그리 생소한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는 바 이 광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다. 시각(視覺)에 있어서나, 광도(光度)에 있어서나 실로 이상의 극을 이룬 성공이라고 선구는 감탄하여 마지않았다. 더욱이 자유자재한 광폭의 조절이나 빛깔의 변화에 이르러선 기절할 만한 노릇이다. 이렇게 상상 밖의 갖가지 현상에 어지간히 놀란 선구였으나 젊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조그마한 선물로 해서 받은 충격에다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물러가기에 앞서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내주며

“이걸로 우리말 공부를 해 보세요.”한다.(…)

“아, 한글!”

선구는 부지중 외쳤다. 손가락으로 한글을 짚으면서 여인은 얼굴을 본다.

“아니, 헤민어를 영어로 풀이한 사전예요.”

(53~56면)

나.

우선 들어선 첫 번째 건물의 복도만 하더라도 높다란 천정에 끝이 안 보일 만치 까마득하게 뻗쳐 있다. 안내도에 나타난 걸 보니 이런 건물이 다섯 개나 있다.

이렇게 큰 공장을 돌아다니려면 무척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했으나 그런 걱정은 필요치 않았다. 복도 좌우권에 콤베어 벨트가 흐르고 있어서 그 위에 올라서면 걸을 필요 없이 쉽게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일행이 벨트를 타고 복도 양쪽에 달려 있는 이방 저방을 돌아다녔다. 어느 곳이나 사람은 없고 기계만이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있다.

(224~225면)

다.

과학센터가 설립된 지 이태만에 과학자들은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위촉 받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업을 훌륭하게 이룩하였다. 그것은 전 인류가 충분하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식량, 의복, 주택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다. 재래의 농사와 대신 공기와 바닷물의 분해 및 재결합과정에서 무진장한 식량을 뽑아 내는데 성공하였고, 흙 속에 무진장으로 끼여 있는 알루미늄 성분을 섬유화합으로써 가볍고 시원하고, 가공하면 따스하고 그리고 무한 질긴 새로운 의복지 <시루>를 창안해 냈고, 이 <시루>에 변화를 붙여 <비시지>란 건축재를 발명하였다.

<비시지>는 능히 내화(耐火), 내수(耐水)의 성질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구부리고 펴고 오려내고, 이 재료로 2층집을 짓는데 두 사람이 세 시간이면 족하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세상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106면)

이러한 이유로 『완전사회』는 표제 ‘사이언스 픽션’이 지시하는 것처럼 과학소설(SF)로 분류되어 주로 논의되었다.

일반적으로, 과학소설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와 비판, 타자(외계인 또는 외계세계)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문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⁶⁾ 작가 복거일도 과학소설(SF)의 개념을 “과학이 사람의 삶과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다루는 소설”⁷⁾로 정의한 바 있는데, 『완전사회』는 이러한 정의에 충실한 작품이다.

과학소설의 소재는 생물학이나 물리학, 시간, 공간 따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과학소설의 소재를 어떤 특정한 것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체로 관심 깊게 다루고 있는 소재가 인간의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많다.⁸⁾ ‘원격이동’, ‘시간여행’, ‘다중우주’, ‘사이보그’, ‘인조인간’, ‘외계인’ 등이 그 예가 된다. 『완전사회』는 이 중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으며, 전쟁을 통한 인류역사의 폐해에 대해 그리고 ‘역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인류사)에 대한 자못 진지한 통찰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의 경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세의 한국인 남성 ‘우선구’는 20세기의 현실에서 ‘완전인간’으로 차출되어 21세기의 가상의 미래공간으로 보내진다. <미래에의 수면 여행>이라는 이 계획은 미국의 디드위크 박사의 주도와 유엔의 기획에 따른 것이다. 유엔 사무국 직원 15세대만으로 비커즈 섬의 유엔가족이 구성되고,

6) 김성곤, 『SF: 새로운 리얼리즘과 상상력의 문학』, 『외국문학』, 제26호, 열음사, 1991. 13면.

7) 복거일, 『과학소설의 세계』, 『멋진 신세계』, 현대정보문화사, 1992, 6면.

8) 임성래, 앞의 글, 11면.

우선구의 약혼녀인 장숙원도 그 일원이 된다. 160년 후, 비커즈 섬의 기밀실 안 ‘수면캡슐’안에서 눈을 뜬 우선구는, 특수시대인 소보노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관리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제 세상은 진성인(眞性人, 워시두)들의 여인천하가 되어 있었다. 우선구는 인류의 조상인 자신에 대한 그들의 처우에 환멸을 느끼고 자유세계로 탈출을 시도한다. 비커즈 섬의 은거생활 동안 그는 장숙원의 일기장, 연감, 해설 서적, 기록문 등을 통해 그동안 벌어진 인류 역사를 공부한다. 그는 비커즈 섬의 해안 경비원들의 부정적인 성행위를 목격하기도 하는데, 이때 찾아온 리긴 기자에 의해 다시 소보노으로 끌려간다. 변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귀빈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철저한 감시가 뒤따르고, 다시 만난 리긴과는 오해를 풀고 친밀한 사이가 된다. 헤어지루(중앙, 수도)를 구경할 기회가 주어지고, 데기온 제작소(장난감 공장), 학교 등을 방문하는 등, 우주정거장과 화성, 우라늄 광산 등 발전한 인류의 문물과 시대분위기를 체험한다. 외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성인(지구에서 쫓겨나 생존한 남성들)들을 설득해달라는 정부와 자유를 요구하는 그와의 타협이 무산되고, 그는 전기시대에 간헐적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선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 리긴이 따루(세계정부의 영도자)에게 도움을 청해 그를 구출한다. 우선구는 감시를 받는 생활 속에서도 몰래 시대구경을 나서서 연극 관람을 하는 등, 예술을 억압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몸소 체험하기도 하고, ‘지국수복위원회’ 라디오 방송으로 현 정세와 화성에 대한 궁금증을 부족하게나마 해소한다. 그를 정부시책에 활용하기 위한 시니 팔(서열제 2위의 정부각료)의 조치로 만난 리리시노는 전형적인 껌브주의자(동성애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진성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금지됨)들이 ‘희망과 우정의 모임’(종교단체)을 이끄는 인물로서 현시대의 ‘두버무’(성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진성인)주의를 비판하고 그에게 교주가 되어주기를 간청하기도 한다. 이후 화성 전문가인 샘앤 교수도 만나 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선구의 이런 반정부적 행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리긴,

루비 등이 공안위원회에 연행된다. 그는 현시대는 성(性)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니 팔의 초대를 받아 ‘홀렌(자위행위로 성욕을 해소하는 진성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장려됨)의 집’을 방문하여 체험하지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대안을 찾기 위해 샘앤 교수를 찾아 가지만 결국 반세계 정부 음모혐의로 구속되어 수감된다. 그러다가 리리시노의 계획에 의해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희망과 우정의 모임의 교도들이 모여사는 마을로 납치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위로 끝난다. 그러나 탈옥 소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리긴, 루비, 유순 등이 복권되고 시니팔의 신임도 얻게 된다. 화성과 정부와의 전쟁발발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 않고, 께브와 홀렌의 그칠 줄 모르는 성(性)소동으로 시대는 혼란스럽다. 이에 우선구는 어리석은 역사의 타성(惰性)으로 인한 인류의 참극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감한다. 우려하는 그에게 리긴은 세계정부 문교 위원회에서 공모하는 문예작품을 쓸 것을 권유하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 전환점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사명감을 발휘하기로 결심한다.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갈등과 대립을 다룬 〈미래전쟁〉이라는 소설을 써서 마침내 따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후 반정부 인사의 석방, 폭력주의에서 방향전환한 정책대결, 께브 소동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방침이 속속 진행되고, 화성과도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는 등 문학적 효과는 대내외로 확산된다. 따루상 축하 연회에서 따루 로잔은 〈미래전쟁〉속 켄타리 엄마와 두 딸을 인간 혁명을 제시하는 기념물로 만들고, 그 동상에 ‘〈켄타리리즘〉 만세’를 새길 것과, 우선구를 평화사절의 대표로 화성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만인의 찬성 속에 제의를 승낙한 우선구는 리긴의 축하를 받으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작품 속에서 우선구가 수면여행을 끝내기까지 인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가)을 거쳤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기구 및 제도들(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기구 및 제도들은 작가적 고안 - 외삽(extrapolation) -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9)

- ① 햄진이론: 한 과학자의 '무정난자의 발육조절'이라는 호기심 어린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무수정 인간 탄생 실험'이 성공함.
- ② 칼렙선언: 임신과 출산, 육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성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여성해방을 선언하는 '칼렙선언'이 발표됨.
- ③ 칼렙공화국 건설: XX염색체 결합인 무정아(無精兒)만으로 이룩된 여성 국가 탄생.
- ④ 스톤만 사건: 남성들은 이 과정을 방관하는 동안 '스톤만 사건'이 발발함.
- ⑤ 전세계 여성들의 결집: 칼렙공화국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스톤만 사건'의 잔인성에 항의하는 전세계 여성들이 단결하여 전쟁을 선포함.
- ⑥ 전쟁 시작: 본격적으로 전쟁 발발, 여성들은 '칼렙주의'를 부르짖으며 여성공화국 건설을 꿈꾸지만 남녀 공존을 주장한 남성들은 열세에 몰림.
- ⑦ 남성 패배: 12년간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성들은 완전히 패배함.
- ⑧ 남성 추방: 8천여 명의 잔존 세력들을 이끌고 남성들은 화성으로 탈출함.
- ⑨ 남성 멸종: 잔여 남성들은 위안부로 전락하거나 생식 기능 제거 수술을 받으며 잔존하다 멸종함.

9) 이정옥의 정리를 인용함, 앞의 글, 156~157면.

나.10)

제도	형식	내용
정치 (국가)	세계정부 단일중앙집권제	세계정부(입법기관)->지역권-> 사회권(행정기관) 인민은 평등하며,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원, 현자원, 원로원의 입법기구가 3년에 한 번씩 세계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따루’를 선출.
경제	정부의 통제경제	모든 생산시설이나 판매 기구는 사회권 직영이며, 데기온 공장에서 보듯이 인민은 하루에 표준에 4시간 정도 노동한다.
언어	헤민어	소설의 표현을 빌면, ‘가장 합리적인 표음문자’인 한글을 에스페란토어처럼 교정, 정착시켜 세계의 단일 언어로 사용한다.
교육	자율교육	초급 5년제, 단련학교 3년제, 전문학교 순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며 깨치도록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	평형상태유지	약물 만능을 벗어나 자연의 원칙에 순응하며, 생명체와 반생명체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처방한다.
종교	수양단체	개인의 신앙은 허용되지만 종교 단체의 형성은 금지되어 있으며, 수양단체가 집단적 종교활동을 대신한다.

작품 속에서 우선구는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현 인류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 여건을 탐색하고 조사해나가는 인물이다. 그는 시간여행을 떠난 후에도 약혼녀인 장숙원과의 정신적 교감에 힘입어 그녀의 기록물로 지나온 인류 역사를 되짚는다. 또한 도서관에서 찾아낸 문헌들을 통해 인류가 3, 4차 대전을 겪고 12년간의 성(性)전쟁을 치룬 후 생존한 남성들마저 화성으로

10) 복도훈의 정리를 인용함, 앞의 글, 357면.

쫓겨나고 여성들만이 남아 있는 현실도 알게 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복구되었다는 것,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단일 국가(세계정부)로 되어 있다는 것, 우주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인류가 달나라, 화성, 목성 등에 이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시국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우선구는 갖가지 방식으로 지나온 인류 역사를 추적해나가면서, 현 인류의 문제에 대한 원인 탐색과 그 해결에 주도적으로 기여한다. 여기서 그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집단에 대한 추리를 수행하므로, 작품의 서사는 탐정소설과 같은 일반적인 추리서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완전사회』는, 과학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일반적인 과학소설과는 다르게, 성(gender), 계급, 인종 갈등과 같은 현재의 정치 문제를 이차 세계를 통하여 재조명하는, 윌 콕스가 말한 ‘정치적 과학소설’에 해당한다. 즉 현재의 일차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gender)의 문제를 ‘완전사회’라는 이차 세계를 통하여 재조명하는 정치적 과학소설인 셈이다.¹¹⁾

작가 역시 한 인터뷰에서 과학소설(SF)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태초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본성이며, 이상적 가치임을 역설한 바 있다.¹²⁾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인간성을 수호하기 위해, 남녀의 공존은 필연적이며 그래야만 성적 갈등이라는 인류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작가의 정치적 믿음은 작품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11) 이정옥, 앞의 글, 156면.

12)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인간 삶의 근원적 카테고리에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심성처럼, 태초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던 잠재된 본성처럼 인간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그리고 달성해야 할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SF입니다. SF는 그것을 형상화하여 구체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앞으로 국내 문학계에서도 분명히 매우 커다란 가치로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소준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국내 최초의 장편 SF 『완전사회』의 저자 문운성」, 『SF 매거진』, 1993, 46면)

2. 시대적 배경과 대중성의 문제

전후 한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민족 전체의 내재적인 요구가 4·19 혁명으로 현실화되는 동안, 전후세대의 작가들은 자기변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은 자신들이 체험했던 전쟁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되묻기 시작하고, 삶의 현실과 개인의 존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전후소설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문제의식의 내면화에 주목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등장한다. 직간접적으로 전쟁과 같은 민족의 거대담론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쓴 작가군과 함께 현실의 관념화(이청준), 일상성과 감수성(김승옥)을 오롯이 드러낸 작가들이 활발하게 글을 써내었다.¹³⁾

다시 말해, 1960년대에는 감정의 과잉과 허무주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여실히 보여준 1950년대 문학적 흐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1960년대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으로 전쟁 체험의 직접성을 지양하고 서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작가들이 생겨났다.¹⁴⁾ 작가 문운성 또한 『완전사회』를 통해 주관적인 감정의 과잉이라는 전대의 문학적 주류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안목으로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민족, 조국의 현실에서 나아가 인류사적인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 작품을 써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완전사회』는 새로운 성찰의 서사를 꿈꾸었던 1960년대 문학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완전사회』가 가진 이러한 차별성의 저변에는 다음의 원인들을 들 수 있겠다. 한국 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현실 참여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4·19에 의해 고무되어 증폭된 시기이다. 그런데 이런 문학계의 관심도 남정현의 『분지』 사건(1965) 등이 터지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촉되는 좌익

1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1945~2000』, 민음사, 2003, 216~238면 참조.

14)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3~14면 참조.

문학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잠시 주춤하게 된다.¹⁵⁾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작가가 보여준 소재 및 장르 선택의 참신함¹⁶⁾과 이와 맞물린 시야의 확대는, 현실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이뤄진 작가적 고민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주간한국』의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으로서 『완전사회』가 태생적으로 대중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주간한국』은 1964년 9월 27일 한국일보사에서 창간되어 ‘산업화 시대의 기획 신문’으로서 박정희 정권의 대중문화 정책의 의도에 걸맞게 ‘흥미본위’의 편집방침을 내내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지는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호도하거나 허위적으로 해결했던 『선데이 서울』 등의 전사(前史)적 지위를 갖는 대중문화잡지로 인식되기도 한다.¹⁷⁾

『주간한국』이 정기적으로 현상 모집한 이러한 ‘추리소설’ 계열은 문학의

-
- 15) 장석주, 「문학과 현실」,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3:1957-1972』, 시공사, 2000, 240면.
- 16) 1960년대 서양 과학소설의 번역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바야흐로 창작 SF로서의 『완전사회』의 등장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번역된 과학소설 작품은 10종을 넘지 않았으나, 1960년대에는 대략 50여종의 작품이 번역, 출판되었다. 로버트 A. 하인라인, 에드거 R. 버로우즈, 아이작 아시모프 등 다양한 작가들이 소개되었다(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제5호, 대중서사학회, 2000.2, 76~77면 참조).
- 17) 『주간한국』은 급변하는 사회상을 스펙타클화는 전시효과로써 제시하여 장밋빛 꿈을 대중들에게 주입하는 한편으로, 모든 사건과 사고의 구체적 내막과 사회적 의미를 희화화하여 엔터테인먼트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조국근대화’를 매진해야 하는 국민들을 계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의심 없이 내딛게 하기 위한 위안과 안락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맡은 이 주간지는, 후발 자본주의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대중들의 비판의식을 무마하고 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성담론의 활성화와 연예계 가십 공론화, 스포츠의 엔터테인먼트를 잡지의 색깔로 정착시켰던 것이다(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6, 225~258면).

위상이 엔터테인먼트로 재구축되는 국면을 예시화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완전사회』가 실린 『주간한국』의 지향점은 이 작품의 색채를 어느 정도 예감하게 해준다. 소설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현 인류의 성 문제에 대한 주인공 우선구의 과도한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갈수록 『주간한국』 내부적으로 ‘성 담론’이 증가하고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¹⁹⁾

카웰티에 의하면, 대중문학과 문화의 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 가설을 따른다. 첫째, 기존의 가치와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세계를 전개한다. 둘째, 사회 구성 집단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개인 내부의 가치관 혼돈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에 가상의 해결을 제공한다. 셋째, 가상의 세계를 통해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금지되어 온 영역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새로운 문학적 실험을 전통적인 도식성의 세계로 끌어들이어 문화적 안정을 추구한다.²⁰⁾ 『완전사회』가 보여준 해피엔딩, 화해의 결말은 앞서 카웰티가 말한 사회집단 간의 갈등이나 가치관의 혼돈을 해결하고 질서를 부여하여 가상의 해결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봉합은 그것이 일시적 안정에 불과할지라도 독자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락과 위안으로서의 대중문학적 특질, 즉 대중성을 확보해준다.

작가 문운성은 특히 작품의 결말부에 소설 속 소설인 ‘삼입서사’ (미래 전쟁)를 배치함으로써 공존·상생·화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옹호는 전시대(현실세계) 우리 역사의 이데올로기 싸움, 전쟁으로 인한 상처극복을 상기시키면서도, 그 갈등을 봉합시키려는 서사전략의 일환이다.

18) 전상기, 앞의 글, 247면.

19) 이런 측면에서 『완전사회』는 “당대 정권의 이율배반적 선정주의 정책을 수행한 『주간한국』”(전상기, 위의 글, 249면)의 초기 징후를 보여준다.

20) 박성봉,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106~107면.

Ⅲ. 지배이데올로기의 투영과 현실 비판의 서사

1.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편린과 공존·화해의 메시지

『완전사회』에 대해 선구적으로 주목한 이정옥은 이 작품이 출간된 1967년이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집단화된 사회운동으로 촉발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 페미니즘이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흥되고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거론된 점만으로도,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설정하여 여성들의 집단적 투쟁과정을 그린 이 작품의 시기적 선구성이 드러난다고 평가하였다.²¹⁾

그런데, 작품 속에서 주인공 우선구 눈에 비친 이 공간은 과학적 발전 - 테크노피아 - 만 이루어졌을 뿐, 과거사회와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불완전한 공간, 디스토피아이다. ‘완전사회’를 표방하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이 있는 곳이기에 우선구의 눈에는 결코 ‘완전사회’가 아니다.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 개성의 불신. 불친절.
강권주의와 이에 따르는 공포정치의 그림자.
지능도(知能度) 얕은 대학생들. 관객없는 극장.
결국 현대 역시 진정한 평화는 없다. 평화 없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고통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인간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한 제아무리 발달한 물질문명인들 무엇이
고마우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사회불안의 제거없이 사회의 향상은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혹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사회불안의 씨는 성문체에 걸려 있다. 계브와 두버무의 처리가

21) 이정옥, 앞의 글, 142~148면 참조.

그것이다. 이것만 해결함 된다」라고.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곳에,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과거역사를 돌이켜 볼때 짐작되는 게 있다. 선구는 자신의 교양과 경험에 비추어 인류 역대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럼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수난사의 계속이었지 않은가? 그 타성(惰性)은 오늘 이 시각까지도 뻗치고 있다. 오늘의 위정자 따루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다.(433~434면)

그(우선구)는 인류의 선조로서, 완전인간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킬 고민과 궁리를 한다. 다음의 대목을 보자.

세기의 사명.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절대사명.

그것은 뭐냐? 오늘의 인류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일이다.(…)

혹 이 크나큰 과오는 어쩌면 역사적 필연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걸머진 당연한 멍에인지도 모르겠다. 멍에를 벗지 않은 채 벗을 생각도 않은 채 자유를 찾아 날뛴 인간의 업(業)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지 않겠나 하고 선구는 궁리하였다. 오늘에 있어 성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아니 오직 이것만이 절대과제인 것은 인간 본질의 규명, 다시 말하여 인간의 발견이다.

이것 없이 인간사회의 성공적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인류사회의 타성에 중지부를 찍어야 하겠다. 문제는 크다. 그렇다고 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이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할 역사의 증인이 나 우선구가 아니겠는가. (433~435면)

이정옥은 이 작품이 불완전한 여성사회에 대한 충고와 비판을 던지고 있는 작가(내포작가)의 메시지가 다분히 남성우월적이며, 쇼비니즘적인 결론을²²⁾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바 있다. 후반부로

22) 여기서 쇼비니즘(chauvinism)의 의미는, 폐쇄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정옥은 작품의 성차별적 시선, 여성혐오감이 상대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감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남성쇼비니즘(마초이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

갈수록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본질적 문제 제기에서 멀어져서 반페미니스트적 메시지를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³⁾

작품이 보여주는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성 문제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투영된 다음의 대목에서처럼 간혹 나타난다. 고전 문화 연구회의 학술 연구회에서 성문제에 관한 우선구의 발언은 다분히 보수적인 남성주의적 시각을 보여준다.

“구세기에 있어 여성은 상대적인 남성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남성을 여성의 비호자(庇護者)로서 대우해야 마땅했을 텐데 대다수의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취약성(脆弱性)을 노출시키려고 남성의 자제력(自制力)을 마비시키는 데 노력한 것 같아요. 그 본보기가 여성들의 짧은 치마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를 남성들에게 자랑하겠다는 아무 실속 없는 이유 하나로 추운 날씨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하체를 노출시키고 있었죠. 그 결과 거의 모든 여성들의 내장 기관은 형편없이 됐어요. 수지 맞은 건 산부인과 의사들뿐이었죠. 개업 의사의 과반수는 부인과 의사였나 봅니다.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여성층의 도발(挑發) 행위에 불나비 모양 푸드덕거리다간 자신과 상대를 불살라 버리기 일췌였구요.” (208면)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우선구의 눈을 통해 비추고 입을 통해 말하는 여인친화 ‘완전사회’의 성 문제, 부조리는 작품이 창작된 당대 현실의 부조리와 닮아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고발과 풍자를 낳는다. 작가는 여성만이 존재하는 미래의 폐해를 보여주면서, 실제 남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당대 현실도 마찬가지로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래는 현실의 거울이

이다. “텍스트는 여성들만의 유토피아에 사느니 여성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의 쇼비니즘적 결론을 유도하는 작가(내포작가)의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이정옥, 앞의 글, 161~162면)

23) 이정옥, 위의 글, 159~164면 참조.

되어 균형을 잃고 일그러진 현실을 되비춘다. 작가의 〈머리말〉에서도 보듯이,²⁴⁾ 『완전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 완전사회 즉 유토피아를 꿈꾸는 대중들의 열망을 담아냈으면서도,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메시지는 내포작가이자 초점화자인 우선구를 통해 작품 속 다음 대목으로 강변된다.

남성의 횡포는 합리적으로 제거되어야지 남성 자체의 말살은 여성에게도 이롭지 못했다. 깨브와 홀렌 그리고 두버무 문제를 둘러싸고 인간은 또 다시 양보 없는 대립을 벌였다. 성의 분쟁이 해결난 오늘날 인간들은 기호, 식성을 가지고 또 다시 싸운다. 결국 어느 한 편이 남긴 하겠지.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인간은 동물적 욕망, 피해 의식이 남아 있는 한 인간은 동물이요, 역사는 처절한 살육의 연속일 거다. 동물적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싸움의 핑계 거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인간 자체의 혁명을 치러야겠다. 역사적 여건 하에 얽매어 지내 온 인간을 지양하고 의지의 인간, 능동의 인간으로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겠다.(499면)

이러한 작가의 역설은, 성 문제보다 중요한 인간 본질의 규명에 힘쓰려 하는 주인공 우선구의 사명감과 그 실천 -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취줄 미래상을 그린”(482면) 소설의 집필 - 행위로 집약된다. 그리고 주인공 우선구의 이러한 창작 의도는 실제 작가의 창작의도와 겹쳐 있다.

24) 「인간사회의 영원한 꿈. 전쟁 없고 배고픔 없고 두려움 없는 사회. 마스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회. 이러한 사회. 이른바 「완전사회(完全社會)」를 바라는 건 한낱 허황된 꿈일까.(…)나는 된다고 본다. 장래의 어느 날엔간 완전사회는 이룩되리라고 내다본다. 헛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 있는 예기다. 그럼 그 꿈은 어느 때 어떤 경로를 거쳐 현실화하겠는가. 이의 대답이 소설 「完全社會」다.」(『완전사회』 머리말 부분)

2.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와 풍자의 상상

『완전사회』는 1960년대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타의 작품들처럼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의 사유 자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차원의 내면화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소시민의 무력한 현실을 풍자한 서기원, 이호철의 소설이나, 남정현의 이른바 “직선적 풍자” 소설과 같은 풍자소설의 득세는 이러한 내면화의 산물이었던 것인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문윤성의 작업 또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윤성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양상은 앞선 작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즉 우선구를 완전인간으로 뽑아서 인류구원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미국인(디드위크 박사)이라는 설정, 당대 대중이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유엔²⁵⁾의 전면 배치인 인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공산주의의 대립각으로서의 존재감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북미합중국 뉴욕시 맨하탄 지구에 우뚝 솟은 그랜드 호텔. (…)

(창가의) 그는 시론 디드위크 박사. 유엔 사무국 과학 분과위원회의 책임 서기로 있는 그는 황홀한 야경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처량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실로 중대하고 뜻깊은 사무였다. (…) 이름하여 <미래에의 수면 여행(睡眠旅行)에 관한 계획서>라 한다. (…) 아득히 먼 태고로부터 오늘에

25) 우리는 국제연합(United States, 이하 유엔이라 줄임) 설립일인 10월 24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과거가 있다. 유엔의 설립 자체가 한국민족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남한) 정부에게는 경사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었다. 마치 남한을 지켜준 은인으로서 미국을 대하듯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은인으로서 유엔을 대해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수립-남한단독정부의 정통성 확보-은 어려웠을지도 모르며,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이 ‘집단안전보장’, ‘남침에 대한 세계정부 차원의 응징’이라는 명분을 담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완범, 「우리에게 유엔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통권 11호, 역사와비평사, 1990, 5, 265면).

이르도록 쌓아온 문명의 자취를 몽땅 불살라 버리기에는 너무나 허전한 현대인의 괴로움에서다. 멀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거다. (…)

보내자. 저 세상에 오늘의 우리의 한 사람을,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비극을 앞날의 새 세상에 전할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고.(3-6면)

작품 초반부의 이러한 설정은 전쟁의 상처라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독자들에게 전쟁 반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갈등 반대라는 작가의 메시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든다.

마치 조지 오웰이 『1984』(1949)를 통해 전체주의적 사고를 경계했던 것처럼, 작가 문윤성도 성(性)의 말살 나아가 감시와 통제 등으로 인해 예술창작의 자유마저 억압되는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개인성의 말살을 부르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경계한다.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가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를 연상시키게도 하지만, 폭압적이고 획일화된 사회, 경직된 당대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은 또한 분명하다.

『완전사회』는 주인공 우선구가 인류 역사를 여러 방법으로 추적해가면서 역사추리소설의 서사와는 다른 방식의 추리서사를 보여준다. 『완전사회』는 미래의 가상 공간을 설정하고, 작품의 꺾진성을 위해 다양한 과학적 설명을 확보하고 있는, 과학소설로서의 환상성²⁶⁾도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대체역사소설, 역사추리 소설이 ‘만약 ~했더라면(What if)’과 같은 과거의 서사를 그려낸다면, 『완전사회』와 같은 과학소설, 미래소설은 ‘만약~ 한다면(할 거라면)’과 같은 미래의 서사를 그려낸다. 그리고 양자 모두 과거든 미래든

26) 과학소설의 환상은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또 다른 현실 상황이라는 하나의 과학적 요소를 이차세계(미래의 가상현실)에 외삽(extrapolation)하여 그것을 핵으로 삼아 그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갖춤으로써 가공으로 구축된 가상현실이다. 과학소설은 이 가상현실을 통하여 현재의 현실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예언적 비전과 역동적 변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로 회귀한다(이정옥, 앞의 글, 140면).

현재의 이야기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소설의 이러한 ‘외삽법’은 결국 미래 혹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풍자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완전사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풍자의 양상은, 가상의 역사적 공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유사하게 소재로 삼은 소설들²⁷⁾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1987)나, 최인훈의 『태풍』(1973)과 같은 대체역사소설에서의 지명과 인명은 현실의 알레고리를 보여주는 세심한 장치이다. 우선,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에서는 당대 현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기관명 등이 등장한다. 즉 조선 총독부 권력의 핵심체인 ‘지신다이(慈信臺)가 청와대를, 도우꼬우의 ‘국가보안처’가 국가안전기획부를, 일본군의 ‘특무사’가 보안사를, 도우꼬우에서 군부 쿠데타 끝에 발족한 ‘호국군사위원회’가 국보위를 각각 암시하고, ‘게이조우 데이교꾸 대학교(京城帝國大學校)’가 “진실은 나의 빛”이라는 모토를 가진 서울대학교를, ‘풀빛신생활운동’이 새마을운동을, ‘신사건립성금’이 독립기념관건립성금을 각각 연상시킨다. 이러한 명칭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는 유추적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²⁸⁾ 마찬가지로 『태풍』에서는, 주인공 오토메나크의 모국인 ‘애로크’는 ‘한국’을 식민지 본국 ‘나과유’는 일본을, 강대국 ‘니브리타’는 영국을 ‘아이세노단’은 인도네시아를 연상시키는 애너그램(anagram, 語句轉綴)이 등장한다. 이렇듯 현실을 환기시키는 작가의 애피레이션(appellation)은 작가가 의도한 바 알레고리의

27) 대표적인 예가 대체역사소설이 될 것이다. 가상의 시공간, 가상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역사소설과 과학소설은 유사점이 있다. 류철균은 과학소설(SF)의 하위 장르로서 대체역사에 주목하여 그 주제의 변이에 주목한 바 있다. 이처럼 대체역사소설은 SF의 자장 안에서 이해가능하다 (류철균·서성은, 「영상 서사에 나타난 대체역사의 주제 연구」, 『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3, 421~446면 참조).

28) 이상옥, 「역사소설의 한 가능성-북거일의 『碑銘을 찾아서』론」, 『외국문학』 22호, 열음사, 1990 봄, 20-21면.

효과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에 비해 『완전사회』에서 가상현실의 지명과 인명은 현실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명명들이다. 특히 삽입서사인 소설 속 소설 '미래전쟁'이 전쟁터와도 같은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서사전략으로써 의도된 것이라면, 소설 속에 설정된 '육식파'와 '채식파'라는 갈등 구도만으로는 성(性)의 대립 나아가 남북한의 대립, 동서의 냉전, 강자와 약자의 대립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정치적 과학소설을 대하는 독자는 대체역사소설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현실(역사)와 당대의 실제(역사) 현실과의 유비추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설적 장치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소설을 포함한 환상소설의 범주 내에서 볼 때, 독자가 낯설음에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망설임, 주저함을 느끼게 된다는 토도로프 식의 '환상성'을 떠올린다면, 이 언어(혜민어)가 과학소설의 이러한 독해 방식을 유도하는 유의미한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문운성의 『완전사회』는 전후의 암울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던, 미래지향적 성찰의 서사를 담고 있다. 그 미래는 작가 개인의 상상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펴진하게 묘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서사(문학)를 향한 독자의 갈망에 응답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역할은 한국문학사에서 대중문학의 가능성을 선보인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 -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 - 를 내면화하면서 이를 은연중에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완전사회』에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소설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이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양상도 노정했다.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본 기존 지적에서처럼, 내포작가이자 작가의 대리인인 주인공 우선구가 보여주는 시각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편린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추구, 상생·공생·인간성 수호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에 대한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메시지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념의 싸움터에서 상처 입은 한국 사회의 당대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전략은 지난 세월 한국사회가 겪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의 일단이다.

작가 문윤성은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꿈을 담아내기 위해, 과학소설(SF)의 실험적인 창작기법을 활용하여 내포작가인 주인공 우선구를 통해 작가적 메시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요컨대 『완전사회』는 과학적 상상력이 탁월하게 발휘된 작품으로, 소재와 형식의 차원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서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전쟁’에 대한 한국사회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성(性)전쟁과 같은 핵사건을 배치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각성도 유도해냈다. 그리하여 성차별적 시선이 내장되어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가적 시선이, “미래(또는 현재와는 현저히 다른 시·공간)에서 현재를 돌이켜본다”(솔즈·라브킨) 과학소설의 정치적 기능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완전사회』를 읽는 독자들은 작품의 지면이 실린 주간지라는 매체의 필연적 속성을 염두에 둘 경우 탈정치적 문맥을 기대하였다가도, 실제 독서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접합이 바로 이 작품이 가지는 이중성이라 하겠다.

이상 살펴본 『완전사회』에서 작품이 지닌 대중문학적 특질은 넓은 의미의 ‘추리서사’의 범주 내에서 그 성격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국문초록>

본고에서 살펴본 문운성의 『완전사회』(1967)는 한국 최초의 본격 과학소설(SF)로 알려져 있다. 작품의 선도성에 대한 강조는 누차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이 지닌 과학소설적 성격과 대중성, 정치성, 풍자의 양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작가 문운성은 과학소설의 메타 기법인 외삽법을 활용하여 본격 과학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60년대 문학의 자장 안에서, 『완전사회』는 여타 작품들과 연계성뿐 아니라 차별성도 갖는다. 우선 작가는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모습을 보인다. 주간지 공모 당선작으로서 『완전사회』는 매체에 의한 한계와 맞물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또한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토피아에 꿈꾸는 일반 독자, 대중을 향한 희망과 격려이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테크노피아(과학문명)에 대한 비판, 위정자 및 전체주의적 제도에 대한 비판, 성문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하고 있다. 결국 『완전사회』가 보여주는 풍자는 실제작가의 대리인이자 내포작가인 주인공 우선구의 시선을 통해 당대 현실의 획일적이고 폭압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끈다.

주제어: 과학소설(SF), 정치성, 대중성, 지배이데올로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 풍자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문윤성, 『완전사회』, 수도문화사, 1967.
문윤성, 『여인공화국』, 흥사단출판부, 1985.

2.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1945~2000』, 민음사, 2003.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김현, 『현대문학의 이론, 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대중문학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박성봉,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박영준, 『장편 미학의 주류와 속류 - 1960년대 한국 장편소설에 대하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북거일, 『비명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87.
이경재, 『한국 현대소설의 환상과 욕망』, 보고서, 2010.
임중기, 『SF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책세상, 2004.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3:1957-1972』, 시공사, 2000.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최인훈, 『태풍』, 문학과지성사, 1992.
로버트 솔즈·에릭 라브킨, 김정수·박오복 역, 『SF의 이해』, 평민사, 1993.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01.
조지 오웰, 도정일 역, 『동물농장』, 민음사, 1998.
피에르 마슈레, 배영달 역,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백의, 1994.
H.포터 애벗,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3. 논문 외 기타

-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 통권9호, 2005.6.
- 김성근, 「SF: 새로운 리얼리즘과 상상력의 문학」, 『외국문학』, 제26호, 1991.3.
- 김준현, 「공주의의 내면화와 1960년대 풍자소설의 한 경향」, 『상허학보』, 제21집, 상허학회, 2007.10.
-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제5호, 대중서사학회, 2000.2.
- 류철균·서성은, 「영상 서사에 나타난 대체역사 주제 연구」, 『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 3.
- 복거일, 「과학소설의 세계」, 박상준 엮음, 『멋진 신세계』, 현대정보문화사, 1992.
- 복도훈,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 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 - 문윤성 과학소설, 『완전사회』(1967)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011.10.
- 소준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 국내 최초의 장편 SF 『완전사회』의 저자 문윤성」, 『SF 매거진』, 1993.
- 신동한, 「기상천외한 미래사회상, 흥미 넘치면서도 이로(理路) 정연하게 그려 - 과학소설의 진수보이는 작품 세계」, 『여인공화국』, 홍사 단출판부, 1985.
- 이상욱, 「역사소설의 한 가능성 - 복거일의 『碑銘을 찾아서』론」, 『외국문학』 22호, 열음사, 1990 봄.
- 이완범, 「우리에게 유엔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통권 11호, 역사와 비평사, 1990.5,
-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 문윤성의 『완전사회론』」, 대중문학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의 매체적 위상 - 『주간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6.
한국일보사, 『주간한국』 제67호, 1966년 1.2.

〈Abstract〉

A Study on Mun Yun Seong's 『Complete Society』 (1967)

- Focused on features as a SF and reflection of ruling ideology

Lee, Suk

This study discusses Mun Yun Seong's 『Complete Society』 (1967) which is known as the first genuine science fiction (SF) in Korea. Its pioneering aspects were emphasized many times, but studies have been hardly conducted for it. Thereupon, this article examines the work focusing on its features as a science fiction, popularity, political aspects, and also satire.

Author Mun Yun Seong used “extrapolation”, one of the meta-methods for science fiction to be equipped with genuine features as a science fic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 during the 1960's, 『Complete Society』 is not only related with the other works but differentiated from them as well. First of all, the author chose the genre of science fiction and showed that he had internalized anti-Communist ideology, the ruling ideology of that time. As a selection in the competition of a weekly magazine, 『Complete Society』 also reflects the limitations of media and also patriarchal ideology mingled in it. However, what the author really wanted to say that was to give hope and encouragement to the readers and public dreaming of Utopia and to recognize the absurdity of reality. Concretely speaking, the work deals with the criticism about technopia (science civilization), criticism on politicians and the totalitarian system, and criticism on sexual issues. Therefore, the satire

shown in 『Complete Society』 leads to critical meditation on the uniform and violent structure of that time through the view of Yu Sun Gu, the main character, who is the deputy of the real author and also implied author.

【Key words】 : science fiction (SF), political aspect, popularity, ruling ideology, patriarchal ideology, anti-Communist ideology, satire

이숙

전주대학교 강사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dp717@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